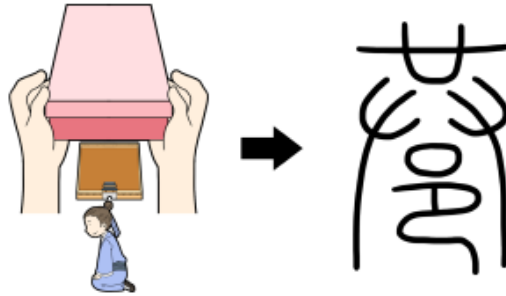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巷

거리 항:

巷자는 '거리'나 '시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巷자는 共(함께 공)자와 邑(땀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巷자의 소전을 보면 邑자가 아닌 邑(고을 읍)자가 쓰였었다. 邑자는 마을에 사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고을'이라는 뜻이 있다. 巷자는 이렇게 '고을'이라는 뜻을 가진 邑자와 共자가 결합한 것으로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 邑자가 邑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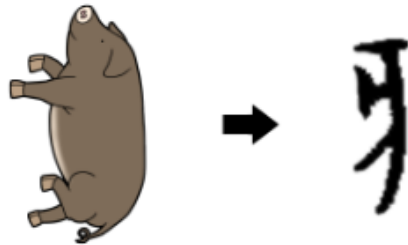
邑

소전

巷

해서

상형문자①



亥

돼지 해

亥자는 '돼지'나 '열둘째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亥자는 '돼지'를 그린 것이다. 이미 돼지를 뜻하는 豕(돼지 시)자가 있지만 亥자 역시 '돼지'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갑골문을 보면 豕자는 돼지를 그대로 豕 그렸지만 亥자는 머리와 다리에 획이 丿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가공한 돼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豕자는 살아있는 돼지를 그린 것이지만 亥자는 머리와 다리를 잘라 도축한 돼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는 관계없이 지금은 단순히 '돼지'를 뜻하거나 십이지(十二支)의 열둘째 지지로 쓰이고 있다.

豕

갑골문

豕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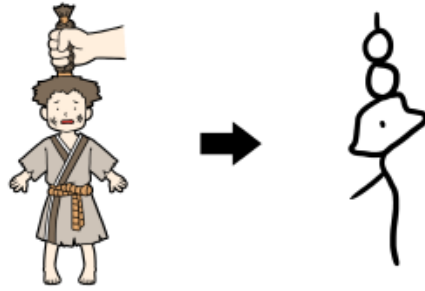
豕

소전

亥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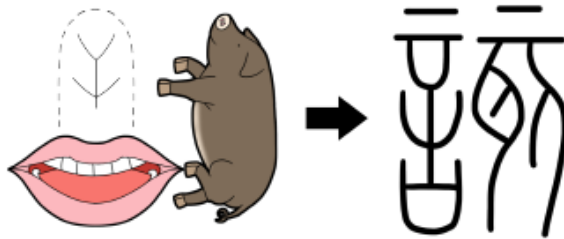
奚

어찌 해

奚자는 '어찌'나 '무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奚자는 大(클 대)자와 幺(작을 요)자, 扌(손 툼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奚자의 갑골문을 보면 머리를 딸아 올린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손을 뜻하는 扌자가 𠂔 더해지면서 사람의 머리칼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 이것은 주인에게 종속된 여자 종을 표현한 것이다. 평생을 노비로 살아야 하는 이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래 '여자 종'을 뜻했던 奚자는 후에 '어찌'나 '어디', '무슨'과 같이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 | | | |
|-----|----|----|----|
| | | | |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해서 |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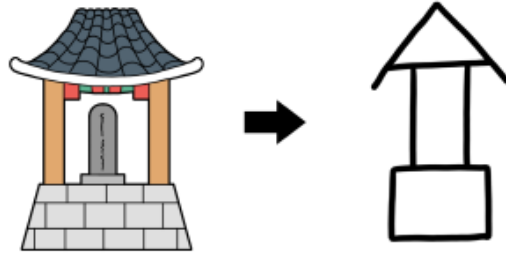
該

갓출[備]/
마땅[當]
해

該자는 '마땅히'나 '갓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該자는 言(말씀 언)자와 亥(돼지 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亥자는 팔다리를 잘라 먹을 수 있는 핵심만 남겨놓은 돼지를 그린 것이다. 여기에 言자가 결합한 該자는 본래 군대의 강령을 뜻했던 글자였다. '핵심'을 뜻하는 亥자에 言자를 결합해 '핵심을 담은 말'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군대에서의 강령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該자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 확대되어 '마땅하다'나 '갓추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 | |
|----|----|
| | |
| 소전 | 해서 |

상형문자①



亨

누릴 향:

亨자는 '누리다'나 '(제사를)드리다', '잔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亨자는 亠(돼지해머리 두)자와 口(입 구)자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亨자는 이러한 조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亨자는 조상의 위패나 비석을 모셔놓는 사당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亨자의 갑골문을 보면 기단(基壇)위에 세워진 사당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의 烹(드릴 향)자이다. 烹자는 후에 亨(누리릴 향)자나 亨(형통할 형)자, 烹(삶을 팡)자를 파생시키게 되었는데, 이때 亨자는 '누리다'나 '(제사)드리다', '잔치'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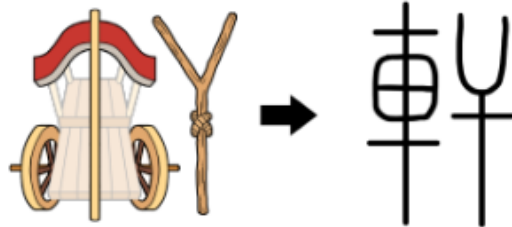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軒

집 현

軒자는 '처마'나 '초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처마'는 지붕의 밑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초현'은 대부 이상의 고관들이 타고 다니던 수레를 말했다. 軒자는 본래 지붕이 있는 마차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軒자는 車(수레 차)자와 干(방패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干자는 적의 침입을 막는 방어막을 그린 것으로 '막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軒자는 햇빛을 막는 차양막이 있는 마차를 뜻했었다. 후에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지붕이 있는 '집'을 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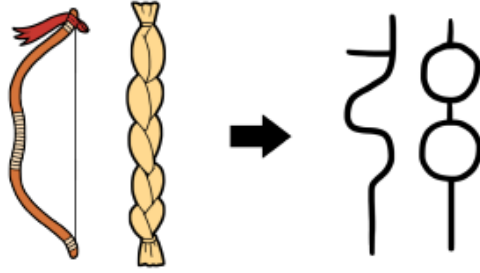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絃

줄 현

絃자는 '줄'이나 '끈', '현악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絃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玄(검을 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玄자는 활과 시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활과 시위를 그린 玄자에 系자를 결합한 絃자는 활에 걸린 '줄'을 뜻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래 소전에서는 玄자에 弓(활 궁)자를 결합한 弦(시위 현)자가 '활시위'나 '줄'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활과 시위를 함께 그린 것이니 '활시위'를 매우 잘 표현한 글자였다 할 수 있다. 사실 絃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弦자가 '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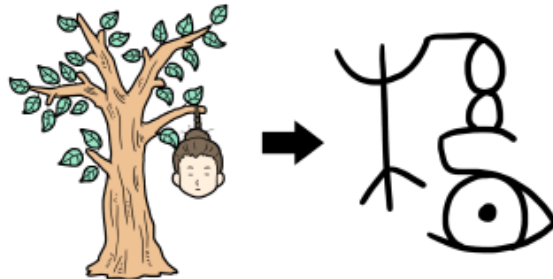
絃

소전

絃

해서

회의문자 ①



縣

고을 현:

縣자는 '고을'이나 '매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縣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目(눈 목)자, 木(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縣자의 금문을 보면 나무 옆으로 눈이 매달려 있는 縣 모습에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縣자의 본래 의미는 '매달다'였다. 그러나 후에 縣자가 '고을'이나 '현'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心(마음 심)자를 더한 懸(매달 현)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縣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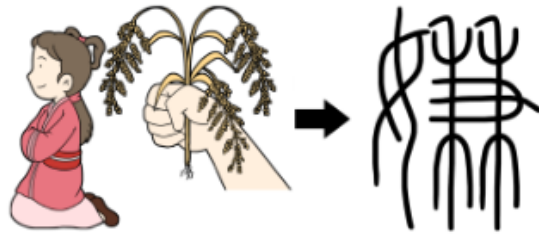
縣

소전

縣

해서

회의문자 ①



嫌

싫어할
형

嫌자는 '싫어하다'나 '미워하다', '의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嫌자는 女(여자 여)자와 兼(겸할 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兼자는 한 번에 많은 벼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겸하다'나 '배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배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兼자에 女자를 결합한 嫌자는 '의심이나 증오가 매우 심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고대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러니 嫌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女자를 응용해 여자의 의심이나 증오가 증가한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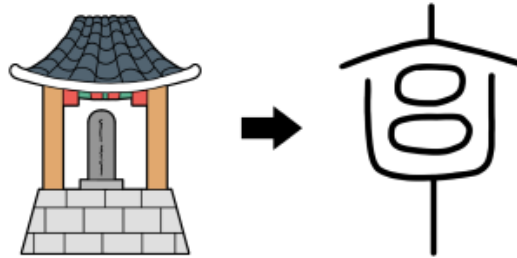
嫌

소전

嫌

해서

상형문자 ①



亨

형통할
형

亨자는 '형통하다'나 '통달하다', '(제사)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亨자는 乚(돼지해머리 두)자와 口(입 구)자, 了(마칠 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亨자는 이러한 글자의 조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나온 亨자를 보면 조상의 위패나 비석을 모셔놓은 사당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갑골문에서는 사당을 그린 𠂔(드릴 향)자가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𠂔자는 후에 亨(누릴 향)자나 亨(형통할 형)자, 烹(삶을 팡)자를 파생시켰는데, 이때 亨자는 '형통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亨자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뜻이다.

𠂔

갑골문

亨

금문

亨

소전

亨

해서